

# 광주·전남 정치권 왜 위기인가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위기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DJ) 이후, 유력한 대선 주자 한 명을 내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비중이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① DJ이후 유력 대선주자 한명 없어

◇'불임 정치권' = DJ 이후, 유력한 대선 주자 한 명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광주·전남 정치권의 위상과 현실을 적나라하게 대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남은 대권 후보가 즐비하다 못해 넘치고 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표, 정몽준 의원, 이재오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 등이 여당의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아권에서도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 안철수 서울대 교수,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김두관 경남지사, 김정길 전 행사부장관 등이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광주·전남 정치권에 차기 대선 주자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10년은 지나야 광

주·전남 출신 대선주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광주·전남 정치권의 현실 안에서 비롯했다는 평가다. 시대적 화두와 흐름에 대한 고민을 통해 과감한 도전과 응전으로 정치적 리더십을 형성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② 리더십 실종에 의원간 갈등 되풀이

◇분열과 반목 = 구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열은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평가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지역 정치권은 구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나뉘어 정치적 분열과 반목을 거듭했으며 이는 18대 국회에서도 보이지 않게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의 신뢰 구조가 약화된 상황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되면서 정치적 비중이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도 지역 정치권은 각종 정치 현안은 물론 지역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반목하는 '모래알 정치'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다. 실제로 광주 모 국회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낯 뜨거운 광경을 연출하는가 하면 지방선거 공천 등을 둘러싸고 국회의원들의 반목도 심각해졌다.

## ③ 당선되면 현실안주... 野性 사라져

◇정치적 한계 = 초선의원들의 '눈치보기'와 중진 의원들의 '현실안주'도 광주·전남 정치권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정치 현안에 대한 과감한 문제 제기는 사라진지 오래다. 여기에 정치적 리더십도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중진 의원을 따르는 초·재선 의원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지도부의

참모 역할을 하는데 그치거나 정국 상황을 관망하면서 이해득실을 따지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초선 의원들도 정치적 소신보다는 오히려 차기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둔 눈치보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유력 당권주자나 대권주자에 과잉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스스로 정치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의 관료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20명의 국회의원의 가운데 행정 관리 출신은 최인기, 이용섭, 조영택, 장병완, 김영록 의원 등 전체의 4분의 1인 5명에 이르고 있다. 오랜 관료 생활에서 체득한 전문성은 뛰어나지만 과감한 도전과 응전이 필요한 정치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 썰시장, 10개 도시 대표와 릴레이 회동

## 오늘부터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11일부터 14일까지 3박4일간 개최되는 2011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를 통해 광주시를 방문하는 해외도시 단체장은 모두 23명, 대표단이 참석하는 해외도시는 모두 55곳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 기간 동안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샌안토니오시를 시작으로 단체장들과 면담 또는 양해각서(MOU) 체결에 나선다. 특히 강 시장은 1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개 도시 단체장들, 국제기구 참석 대표, 기업 등과 30분에서 1시간씩 할애하며 연례 회동에 나선다. 강 시장이 이날 만나는 국제기구 대표는 후앙 크로스 유엔 헤비타트 사무총장,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환경계획(UNEP) 사무부총장 등이며, 미국 샌안토니오 시장, 일본 도야마시 시장, 베넵 아보메이시 시장, 필리핀 일로일로시 시장, 세네갈 나

이로두립시 시장 등과도 일정이 잡혀있다.

특히 중국 상하이, 우시, 우한, 칭다오, 장춘, 르자오, 류저우, 대련, 덕주, 심양, 연태, 연길, 낙양, 광저우 등의 도시 대표단과는 단체장이 아남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상을 배정해 한꺼번에 면담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광주정상회의가 광주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잇따르는 지역국제행사에 이들 도시들의 참여도 가능

### ■UEA광주정상회의의 주요 일정

일시	행사명	장소
10.11	광주정상회의 박람회 개막식 광주정상회의 환영 만찬	DJ센터 홀리데이인광주
10.12	광주정상회의 개최식	DJ센터
	미국 샌안토니오시와 MOU체결	"
	일본 도야마시와 MOU체결	"
10.13	우수기업 수출 MOU체결	"
	광주정상회의 만찬	무각사
	광주정상회의 전체회의	DJ센터
	광주정상회의 폐막식	"
	광주정상회의 환영 오찬	"

하도록 친목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우선 대표적인 환경도시 꾸리차바,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등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 도시들이 동시에 참석하면서 이들 도시 간의 소통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1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10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 시민과 학생 5000명이 생활 쓰레기 20만개를 모아 길이 1만m의 줄에 매단 대형 예술 작품이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 /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쓰레기 모아 예술작품 만들었어요

### 학생·시민 등 5000명 광주정상회담 기념 제작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생과 시민 등 5000여명이 생활 쓰레기 20만개를 모아 길이 1만m의 줄에 매단 대형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

2011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를 기념해 지역 디자인 업체 인스나인과 세계적 설치작가 최정화씨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 작품을 선보이는 '살리고 살리고'(11~14일)전을 연다.

이번 전시를 위해 지역 학생과 시민들이 3개월 동안 커피, 현수막, 과자 봉지 등 생활쓰레기를 모아 최씨의 지도를 받으며 작품을 완성해 나갔다.

이 작품은 불경이 쓰인 천을 줄에 매다는 티베트·부탄의 '롱다' 처럼 무심코 버려졌던 생활 쓰레기 속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엿보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 개막식이 열리는 11일 오후 3시에는 학생 1000여명이 참가해 환경보호와 관련된 글과 그림을 그려 이 작품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빛의만평

- 김중두



이러고도 뿔 달란 소리가 나와?!

www.nhic.or.kr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원더풀 코리아”

감기부터 암까지 보장하고 평생 건강검진을 해주는 유일한 나라

- 세대당 월 7만7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14만3천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 암 등 중증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5%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이 OECD 30개국 중 5위로 평가되었습니다.
- 평균수명(80.3세)이 OECD국가 평균(79.5세) 이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h-well  
국민건강보험